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❼ 생전예수재 下



▶한줄요약
망자를 대상으로 한 천도재와 비교할 때 예수재의 가장 큰 특징은 '시점'과 '주체'이다. 시점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치른다는 것이고, 주체는 재자(齋者)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주체적 의례라 할 수 있다.

# '나의 죽음' 성찰하는 '자행의 의례'

〈自行〉



구인사 예수재. 한편에서는 경전을 읽고, 한편에서는 지전을 이고 도는 모습.

### 한국에서만 전승되는 예수재

사후를 위해 미리 복덕을 쌓는 의례라 하여 생전예수재를 '살아있을 때 올리는 천도재'라 보기도 한다. 망자를 대상으로 한 천도재와 비교할 때 예수재의 가장 큰 특징은 '시점'과 '주체'이다. 시점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치른다는 것이고, 주체는 재자(齋者)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주체적 의례라 할 수 있다.

모든 천도재는 주인공이 망자이기에 남은 자들이 치러주는 타행(他行)의 의례이다. 이에 비해 예수재는 스스로를 향한 자행(自行)의 의례, 자행의 천도재에 해당한다. '자행의 천도재'란 합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가능한 개념이다. 누구든 자신의 죽음의례에서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재는 '삶의 영역인 자행의례'와 '죽음의 영역인 천도재'를 결합함으로써, 본연적으로 '나의 죽음'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힘을 지녔다.

예수재 소의경전인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시왕경)에는, 예수재를 올릴 때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삼보를 공경하고 시왕(十王)에게 기도하며 정성스레 수행할 것을 일렀다. 사후를 내다보며 참회하는 의식이기에 특별한 때를 두지 않고, 오늘날의 초하루 · 보름 법회처럼 일상 속에서 닦아나가게 한 것이다.

오늘날 예수재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중국 당나라에서 예수재가 처음 성립되었으나 송나라 이후 점차 사라졌고, 일본의 경우 예수재와 관련된 기록조차 찾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왕경〉 편찬과 함께 시왕사(十王寺) 등을 세우고 생전에 명부(冥府) 시왕을 섬기는 예수재를 행하였다. 그러나 의례와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다가, 조선 중기에 들어와 의식집의 발간과 함께 예수재 설행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학계에서는 예수재 의식이 수륙재에서 파생된 것이라 보고 있다. 16세기 중반에 대우(大愚) 스님이 편찬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의식절차를 보면 수륙재 의식문과 큰 틀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산 자를 대상으로 한 천도재이기에, 수륙재의 기본구조에 예수재의 특성을 안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에 왕실에서 불교식 칠칠재 · 기일재를 지내다가, 1420년(세종 2)에 이를 모두 수륙재로 대체하도록 명하게 된다. 당시 수륙재의 규모는 칠칠재 · 기일재보다 간소했기에, 수륙재를 불교식 상제(喪祭)로 통일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수륙재는 불교의례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화되어, 중종 대에 폐지될 때까지 지배층과 서민의 불교 상제로 사후 구원의 문제를 맡아왔다. 이후 제도적인 수륙재는 폐지되었으나, 민간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특히 16 · 17세기는 기온이 낮아지는 소빙기(小氷期)에 접어들어 자연재해가 만연하고, 대규모 외침으로 백성의 삶은 극도로 피폐하였다. 이에 종교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의례가 성행하게 된다. 아울러 생전에 사후를 위한 의식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망자를 위한 수륙재뿐만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예수재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라 하겠다.

### '예수 9단'의 의미

큰 틀에서 수륙재의 구성을 따르지만 예수재가 지닌 특성은 뚜렷하다. 우선 삼단으로 이루어진 예수재의 신위체계(神位體系)는 '상위 불보살-중위 신중-하위 영가'라는 일반 천도재의 삼단과 구조가 다르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례이기에 하단에 모시는 존재가 영가일 수 없는 것이다.

예수재에서 상단의 불보살은 증명의 역할을 맡고, 중단이 핵심을 차지한다. 중단에 모시는 존재는 시왕을 주축으로 하여 명부(冥府)를 관장하는 여러 성중이다. 예수재를 '예수시왕생칠재'라고도 하듯이, 사후를 다스리는 시왕이 주 의례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명부 성중을 섬기는 중단 의식은 의례목적과 직결된 것으로, 예수재가 사후에 만나게 될 심판자적 존재들에게 미리 기도 올리며 참회하는 성격의 의례임을 말해준다.

하단은 '부속단'이라 하여 여러 가지 궂은일을 처리하는 명부 권속들을 모신다. 명부창고를 지키는 고사(庫司)를 비롯해, 지상과 명부를 오가는 사자(使者), 말과 낙타 등을 위한 단을 각각 마련하고, 빠짐없이 청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삼단에 모시는 존재를 위상에 따라 다시 상중하로 나누어 9단을 갖추게 되는데, 이를 '예수 9단'이라 부른다. 이를테면 하단의 경우 고사단은 하상단, 사자단은 하중단, 마구단은 하하단이 된다. 부처님에서부터 지천(地天)을 오가는 말에 이르기까지, 천상과 지옥을 다스리는 각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계와 존재가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련사 예수재. 시왕 앞에 쌓아놓은 경전과 지전.

**생전 미리 치르는 내 천도재인**
**예수재 특징은 '시점'과 '주체'**
**살아서 '自力 공덕' 의미 가져**

특히 상단의 존재를 제외하면, 중단과 하단의 존재는 모두 명부와 관련된 존재들이다. 의식문에는 이들이 맡은 각각의 직책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부지명위(不知名位)'라 하여 명부에 근무하지만 이름을 모르는 말단 관리까지 빠짐없이 거론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예수재의 유래를 담은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에 잘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북인도 마갈타국의 병사왕(甁沙王)이 25년간 49번에 걸쳐 예수재를 올렸으나, 어느날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잡혀가 명부의 옥에 갇히게 된다. 왕이 그 연유를 물으니, 명부시왕에게 수십 회의 공양을 올린 공덕이 크지만, 종관(從官)과 권속들은 공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왕은 종관의 명목을 몰라서 그리된 것이라 사정하여 총 259위의 종관명목을 받고 돌아와, 예수재를 지낼 때마다 한 분 한 분 청하며 법식에 따라 공양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왕뿐만 아니라 하급관리까지 세밀히 챙기도록 한 것은, 명부의 엄중함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크다. 사후에 만날 존재들을 강조할수록 자신의 현세 삶을 돌아보게 마련이다. 언제가 다가올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다.

### 참회를 이끄는 경전 빛, 금전 빛

예수재를 기복적인 의례로 보는 외부자들도 많다. 그럴수록 의례의 참 의미를 새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수재의 가장 큰 목적은 죽음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공부에는 소홀한 채 복된 내세만 바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도, 준엄한 인과응보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생사의 문제에서 "죽어서 타력으로 지어주는 공덕보다, 살아서 자력으로 짓는 공덕이 훨씬 크다"는 불교의 수미일관한 가르침이 예수재에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예수재에서는 독특한 설정을 하고 있다. 누구나 전생의 빚을 안고 태어났으며, 이는 경전을 보지 못한 빚과 금전적인 빚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불자라면 이것이 곧 업(業)을 뜻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예수재에 동참한 이들은 빚을 갚는 과제를 의례를 통해 수행해나간다.

〈수생경(壽生經)〉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태어난 해에 따라 육십갑자별로 읽어야 할 경전과 금전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이라 하였다. 이에 동참자들은 각 단에 차례로 경배와 공양 의식을 올릴 뿐 아니라, 경전을 읽고 지전(紙錢)을 헌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빚을 갚고 나면 '함합소(緘合疏)'라는 한 장의 서류를 받는다. 재자의 이름, 주소, 갚을 경전 수와 금액이 적힌 이 서류는 예수재를 봉행하여 전생 빚을 갚았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증명서에 해당한다. 함합소는 봉송 때 지전과 함께 태우게 되는데, 예전에는 반으로 찢어 한 조각을 간직하는 이들도 많았다. 나중에 명부에 가서 불태워진 조각과 맞추어보아 맞으면 그 공덕을 인정받아서 내세의 길을 밝히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재에서 생전의 업을 두 가지 빚으로 표현한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향한 수행'과 '남을 향한 보시'를 이끌기 위함이다. 경전 빛은 삼보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금전 빛은 공덕을 베풀도록 이끄는 방편이니, 이러한 수행과 보시 공덕을 쌓음으로써 업을 맑히도록 일깨우는 데 있다.

따라서 태워버리는 낭비와 번거로움을 감내하면서 만드는 지전과 간이경전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자 업의 위중함을 새기는 종교적 장치이다.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업의 무게만큼 지전과 경전을 머리에 이고 탑을 도는 대중의 모습은, 예수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윽고 소대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봉송의 단계가 되면 모든 장엄 지물(紙物)과 함께 지전을 태우기 시작한다.

**명부성중 봉송하고 예배하는 사이에 지전은 모두 불타 바람마저 잔잔하네.**
**복 쌓고 액 없애니 목숨은 바다 같고 번뇌의 불꽃 길이길이 벗어났구나.**

잔치가 끝나고 초대했던 명부 손님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 지전을 태우며 읊는 봉송 구절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나의 업이자 번뇌를 저처럼 태워 없애는 길이 무엇인지 저마다 생각에 잠길 법하다. 이윽고 재만 남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하여 사후 준비를 마침과 동시에 저마다 성찰적 삶을 다짐하는 것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